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 건의(안)

의안
번호

49

제안년월일 : '95. 11. 4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주 문

- 충주시 장기발전 계획과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부노선 변경
- 충주시 노은면 일대에 교통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노은IC 건설

2. 제안이유

- 기존 S자형 노선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과 선형의 불합리로 향후 물동량 증가 시 병목현상이 발생됨
- 충주 과학산업단지와 충주시 개발 예정지를 관통함으로서 충주시 장기발전에 저해됨
- 예정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심내의 과도한 불용지 발생과 소음, 분진, 지역간 분리 등 도시개발에 저해됨

3. 참고사항

- 없음

건의(안)

존경하는 재정경제원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세계화의 물결속에 국가발전과 국토균형개발에 전력
하시고 교통난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경부고속도로의 소통량 한계로 경부축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유인 효과를 가져올 중부
내륙고속도로(여주~구미)의 조기착공 건설계획이 정

부에서 발표되어 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도민은
중앙정부에 깊은 감사와 커다란 희망에 차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과 더불어 우리도에서는 고속
도로가 통과하는 우리도의 북부 중핵도시 충주에 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지로써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 수안보 온천등 많은 관광자원과 풍부한 용수, 쾌적한 생활환경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호반도시로서 동북부는 충주호등 주변지역으로 둘러쌓여 있어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어렵고,

동남측 방향은 산악지역으로 도시 확장이 불가능한 지세로 형성되어 있어 충주시는 장차 주덕·이류가 있는 서쪽으로 발전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노선은 여주군 가남~노은면 신효리~주덕읍 장록리~이류면 장성리

~구미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충주시 장차의 발전 지역을 관통하게 되므로,

주덕면 장록리~이류면 장성리구간($L=7.5\text{km}$)이 충주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충주시, 중원군의 행정구역이 통합 되기전 수립된 계획으로 그간 여건의 변경뿐만 아니라,

노은면 연하리(여주 가남기점 28.4km)에서 충주I.C 부근의 구간은 지형이 험준하고 계획노선이 S자형을

이루고 있고,

장차 주덕·이류지역이 부도심(인구 7~8만명)으로 발전되면 과다한 불용지의 발생과 도심통과로 인한 지역

간 분리현상 및 현노선에 인접하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등 계획노선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의 경우 도심내 통과를 지양하고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충주통합시

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는 부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건설과 충주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 산업진흥을 열망하고 있는

우리도민의 입장에서 볼때 일부구간 노선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노선변경으로 노은면 연하리~가금면 용전리~이류면 장성리 노선(연장 14.8km)을 변경할 경우

연장은 1.4km가 증가되고 44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나 선형이 매우 양호하고, 변경노선에 인접한 인구가 현저히 낮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향후 물동량 증가로 인한 노선확장 및 S자 노선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 선형의 불합리로 저속 운행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장기적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장호원 I.C와 충주 I.C는 24km의 긴 구간으로 향후 충주시의 2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충주시 노은면 일대에 교통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여주군 가남I.C 기점27km 지점(장호원I.C와 충주 I.C 중간지점)에 노은I.C가 건설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국가의 번영과 우리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이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